

(주)만나피아

키토산 기능성 보조사료 개발로 유기축산의 선봉

“식품의 안전성 추구, 환경문제 개선, 빼앗긴 역사를 되찾는 것, 이 3가지가 제가 인생을 걸고 실현하고픈 명제입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을 것이 없지만 이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주)만나피아 김용일 대표이사는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을 사랑하고 축산을 살리는 길이 모두의 생명과 행복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우리농업은 환경과 국민 건강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친환경 농업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해결책은 바로 ‘유기축산’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김용일 대표가 말하는 유기축산은 “가축에게 유기적으로 생산된 양질의 사료를 제공하고 적절한 사육공간과 행동에 필요한 적절한 사양관리체계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가축의 건강 증진과 복지를 유지하고 화학적인 가축약품의 사용을 절제시키면서 관리하는 것”이다. 물론 질병발생시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사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이 유기축산을 위해 김용일 대표가 찾은 것은 키토산. 키토산은 본래 건강식품, 의료, 미용, 공업, 환경, 축산, 식품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응용되고 있는 것으로 만나피아에서는 약 7여년에 걸쳐 키토산을 이용

한 기능성 보조사료를 개발, 무항생제 가축사육에 성공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만나피아는 현재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직 15명과 생산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나피아의 궁극적인 사업목표는 유기축산의 완성이다

김용일 대표가 취재 중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은 앞서 언급한 “유기축산”이다. 이것은 곧 만나피아의 사업목표와도 일맥상통하다.

김용일 대표는 “유기축산의 완성은 유기축산의 계몽과 유기축산물 생산, 유기축산물 유통 등 3박자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이며, “과거 화학적 관행농업에서 유기적인 환경농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통감하면서 만나피아는 유기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유기농업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선봉에 설 것이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 대표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주장하는 유기축산의 완성을 위해 만나피아에서 내놓은 것은 고분자 수용성 만나키토산.

세계 최초로 고분자 수용성 키토산 (Water Soluble Chitosan)에 대해 미국 FDA의 인증을 획득한 만나피아의 생명과학의 결실인 “만나키토



(주)만나피아 김용일 대표이사

산”은 크게 보조사료와 건강식품, 축산물 등 3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보조사료의 경우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증강 시켜주는 ‘키토산 골드’와 스트레스 해소 및 비타민 강화제인 ‘키토-바이타’, 저혈당증, 감보로 등 질병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프로-2000’을 비롯 사료첨가제용 면역증강제인 ‘키토 올리고’ 등이 있다.

이들 제품은 현재 경기도를 비롯 전국 각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약 760개 농가에서 만나키토산을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계약사육을 하고 있는 전북 정읍시 북면 소재 대홍양계장의 민홍식 사장은 “현재 만나키토산을 닭에게 먹인 후 내병성이 강해 닭의 모습이 활달하고, 4~5일 정도 출하일령이 빨라졌다”며 “회사에서 제가 키운 닭고기가 육질이 뛰어나고, 닭 특유의 비린내가 나지 않는 등 품질이 좋아 전량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밝혔다.

양계에 있어서 고순도로 정제되어진 키토산 분말을 약산에 잘 용해하여 닭에게 섭취시키면 키토산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과 배설되어지는 것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여기서 닭의 혈중으로 흡수되는 키토산은 체내 면역 증강, 체내 세포활성화, 미네랄 흡수촉진,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 증대 및 생리 기능을 원활하고 활발하게 해주며, 닭의 혈중으로 흡수되지 않고 배설되어지는 키토산은 병원균의 혈중유입 방지, 장내 유용균의 번식, 장내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체외배출, 영양흡수의 증대, 분변 악취의 개선, 육질개선, 생리활성 등 많은 생리학적인 도움을 준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닭의 체질 개선, 영양, 미네랄, 비타민 등의 흡수가 촉진되어지는 것이다.



(주)만나피아 사무실 전경

한국 축산부국의 길잡이

만나피아는 지난 2001년 10월 상표등록을 마친 ‘축산부국’이란 브랜드로 한차원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또한 잠시 발행이 중단되었던 “만나피아지”를 재창간함으로써 유기축산을 비롯, 만나키토산의 제품 알리기에 끊임 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초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생물공정연구실 김병홍 박사팀과 미생물 연구 과제계약을 체결, 그 동안의 키토산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더욱 저렴하고 효과가 큰 제품을 대량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됐다.

김용일 대표는 “이 땅에 유기축산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무항생제 키토산 닭고기와 계란을 생산하여 질 좋은 계산물을 싼 가격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축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체제를 갖추으로써 수입농산물의 위협으로 위축된 우리 농업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향후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만나피아의 숙원인 유기축산의 완성이 김용일 대표의 손으로 일궈지길 바라며, 아울러 한국 축산부국의 길잡이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본다.☺